

건학 100년 동국대 이대로 안된다

세계 불교학 '총본산' ... 東大 아니면 누가?

1. 어쩌다 여기까지 왔다
2. 불교대학 '개혁' 만이 살길이다
3. 재단에 대학발전 기대할 수 있나?
4. 100년 동국대 비전은 어디에?

■ 불교대학의 위상
1900년대 초반 일제 강점 하에서 운영됐던 불교대학은 불교민을 위한 학과가 아니라 불교라는 중심사상을 축으로 한국사상·문학·역사·문화학을 가르치는 한국학의 산실 역할을 해왔다. 동국대는 불교학을 비롯한 국학 분야 최고의 대학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불교학은 동국대를 대표하는 학문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학교와 재단에서는 불교대학발전위원회(위원장 영담)를 설치하고 불교대학 활성화를 위한 대안 모색에 나섰다. 최근 불교대학의 성과 및 위상을 정리한 불교대학발전위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교수·강사는 1970~80년대에 비해 불교대학의 학계 위상이 높아졌다(40.3%)고 보는 반면 대학원생은 낮아졌다(58.6%)고 보고 있어 극명한 차이를 드러냈다. 불교대학의 사회적 불교적 위상저하 요인을 졸업생들은 동국대의 전반적인 위상저하(30.3%), 교수진의 수준저하, 종단의 지원부족(각 18.5%) 등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또 교수·강사 상당수(36.2%)가 동국대의 교수 임용과정이 폐쇄적이라고 답해 그동안 불거져 왔던 인용 파행문제를 구성원 들조차 심각하게 여기고 있음을 반증했다. 교수·강사, 대학원생들 대상으로 불교대학의 발전저해 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불교대학 교수진의 관심부족(35.2%), 교수간의 반목 분위기(33.3%), 학생에 대한 교수들의 무관심(11.1%) 등의 답변이 나와 교수들의 의식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교과과정
올해 3월 초 불교대학발전위에서 발표한 <동국대 불교(문화)대학 및 주요 종립대학 학교 교과과정 자료집>에 따르면, 전공과목 가운데 사회 연계과목을 조사한 결과 불교사회경제론, 종무행정 등 7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데 반해 이화여대는 기독교교육학, 예언자 연구 등 17개가, 갈리교신

학대학과는 24개 과목이 개설되어 있어 과목수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기독교계에 비해 사회연계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 연계 과목들은 인력 양성과 졸업자 취업과 직결된다 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다.

포교과목을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 벌어진다. 동국대 서울캠퍼스에 전법교과목, 경주캠퍼스에 포교학과 불교상담심리학이 개설되어 있는데 반해 연세대학교는 11개, 갈리교신학대학교는 13개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출·재가자를 함께 교육하는 불교대학 교과목의 비효율성도 문제다.

공통교육 이외에 출가자의 경우 수행실수, 율장의 학습 등 수행자 교육이, 재가자의 경우 불교 제형강화와 대중성 있는 불교교양과목 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종단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종적·종무 관련 교육, 불교문화산업 연계 교육 등 실용 교육 프로그램 도입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불교계가 할 일과 과제를 분석해 현 시대에 맞게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교과과정의 유연성도 절실히 보인다.

■ 폐쇄성과 교수역량
불교대학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보다는 자족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다. 동국대 출신 중심의 학회 구성과 타 대학 출신 교수가 임용되기 힘든 분위기 등은 불교대학 조직의 폐쇄성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교과 강의의 효율성도 문제다. 출가자 학생들은 강원에서 배우는 것보다 못한 한문 경전 등 교과목의 전문성이 부족함을 지적

교과 과정 확대 '맞춤식 교육' 필요 교수임용·연구범위 폐쇄성 벗어나 '취업문' 좁아 '비인기학과' 인식

한다. 반면 재가자 학생들은 기본적인 한자 교육 없이 바로 어려운 경전 한자를 접하게 돼 교과를 따라가기에도 급급한 실정이다. 불교대학의 전공과목이, 사회적인 현상을 불교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 배양 교육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불교학의 질적 향상을 가로 막는 요인이다. 불교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들이 '불교

학을 위한 불교'로 전락되면서 현실과 괴리된 학문을 위한 학문이 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교응용학문 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접목시킬 불교적 사회연계과목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교수들이 전공 연구보다 외부 강의나 외과 작성에 주력한다는 지적도 교수들의 자질 시비와 실력저하를 불러오는 이유의 하나다. 연세대학교 신학과 교수들의 경우 2003~2005년 발표한 논문이 평균 12편이었는데 반해 같은 기간 불교대학 교수들이 발표한 논문은 평균 5편으로 차이를 보였다. 단순히 실력의 문제만이 아니라 학교와 재단에서 재정적인 뒷받침과 연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동국대 교수회는 4월 6일 발표한 성명에서 "교육·재정여건과 개선도가 최하위인 상황에서 교수연구업적 개선을 바랄 수 없다"며 "재정확충에 따르는 교육 및 연구기반시설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다. 교수들의 실제 전공과 강의과목의 불일치는 심각한 문제이다. 실제 전공 내지 주력 연구분야에 따라 전공

이 세분화되고 과목이 더 확충돼야 한다. 전공이 세분화되면 교원수를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 재정 지원은 필수다.

또 교수들의 연구공포를 진작하기 위해 동국대와 본사급 사찰이 손잡고 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등 '사학(寺學)협동'을 구현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 졸업생의 진로 보장되나
불교대학 졸업생들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동국대 취업지원팀이 제공한 2001~2004년 자료를 살펴보면 불교학 전공은 58%, 인도철학 전공은 39%, 선행 전공은 91%의 졸업생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불교대학 전체 4년간 취업률은 68%로 대학 평균인 60%에 비하면 높게 나왔다. 그러나 스님들이 다수 포함된 선행 전공에 비해 재가자가 많은 불교학·인도철학 전공 졸업자들은 대학 평균 취업률 60%에 못 미치고 있어 재가자 취업의 어려움을 드러냈다.

불교대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졸업 후 취업진로는 한정적이다. 출가를 비롯해 군법사 교법사 등 포교사, 종무직 사원, 대학원 진학, 불교단체 운영, 불교계 언론 및 사회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취업지원팀 한문우 팀장은 "최근에는 종무원을 공개 채용하겠다는 공문이 오는 등 불교계 취업 추천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혀 긍정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에따라 취업지도 및 진로 교육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종단 차원에서 불교대학 졸업생들을 활용할 마스터플랜이 세워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무리 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준다 해도 졸업하고 갈 곳이 없다면 지원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종단 재단 학교가 모두 연계해 졸업생 관리에 나서는 것은 물론, 졸업생의 포교사 법사 불교요가 및 타도 지도자 예비승려 등 자격제도를 시행해, 종단과 불교계에서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불교학회 회장 이평래 교수(충남대)는 "종단은 구인난이 될 정도로 일을 벌여 불교대학 출신자들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데 생명을 걸어야 한다"고 밝혀 졸업 후 취업진로 확보가 중요함을 지적했다.

특별취임 김지연·조용수·박익순 기자

인터뷰

동국대 불교대학장 조용길 교수
"위기가 아니라 최고의 전성기"



불교대학장 조용길 교수는 "불교대학을 위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학부 재학생 250명,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 200명, 특수대학원 250명, 최고위과정 50명과 교수(23명), 강사(50명)가 한국불교의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 불교학을 연찬하는 최고의 전성기"라고 설명했다.

일부 교수들에 대한 외부의 부정적 시각에는 "불교대학의 환골탈태를 요구하며 시작된 '불교대학발전위'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수들은 도태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구성원 모두가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불교학회 회장 이평래 교수

"종단의 지원없이 불교학 미래없어"



한국불교학회 회장 이평래 교수(충남대 철학과)는 현재 불교대학 문제의 원인을 종단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종단이 교과과정 선정, 졸업생 활용방안 등을 면밀하게 관리 못하고 방치했다는 것이다. "학교 구성원들은 외부의 객관적 이고 합리적인 평가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동국대가 교수와 연구원들이 열심히 강의·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불교대학에도 사관학교처럼 '주문식 교육' 시스템 도입"을 주장했다. 종립대학에서 길러낸 우수한 인재로 종단의 발전과 불교대학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교 생태학 특성화 전략 2년의 집중육성 불구 '구심점 부재'

요즘 대학이 화두는 '특성화'다. 정부가 대학교육의 질적 개선 및 구조조정과 특성화 지원을 연계하면서 대학가에는 특성화단이 대학과 학과가 살 길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있다. 과연 동국대의 불교생태학 특성화 전략은 동국대를 살리고, 불교대학을 살려내는 원인이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회의적'이라는 평가가. 불교생태학은 불교를 실천적으로 현대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

받고 있다. 그럼에도 회의적 시각이 끊이지 않는 까닭은 불교생태학이 지난 2년간 특성화 사업으로 집중 육성됐음에도 여전히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증하듯 불교생태학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담당 조직이 명확하지 않다. 불교생태학은 특성상 불교학을 비롯해 다양한 전공분야가 협력·연구해야 하는데, 이를 집중적으로 수행해야 할 구심점이 없다는 것은 치명적이다.

구심점 부재는 자연히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을 낳는다. 송석구 前 총장 시절 외치던 '의학동국' '과학동국'이 흥기삼 총장이 취임하면서 폐기돼버린 전철을 불교생태학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특성화사업 관련 한 전문가는 "아무리 좋은 특성화 기획이라도 학교와 재단의 장기적인 육성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성공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말했다.

국내 유일의 선서화 전시판매장 달마화랑

선서화 : 수행을 오래한 선사들의 심오한 깨달음을 표현한 글씨나 선의 경지에서 얻어진 수묵화(달마도, 산수도, 심수도, 용문, 불화 등)를 일컫는다.

귀한 선서화 작품을 많이 소장하고 계신분과 선서화를 꼭 소장하고 싶은데 길을 모르는 분들의 통로가 되고자 합니다.

- ◆ 선서화의 유통을 위하여 만들어진 선서화전문 화랑입니다.
- ◆ 소장하고 계신 스님의 글씨나 수묵화 등 선서화 작품을 양도하실 분도 상담을 받습니다.
- ◆ 꼭 소장하고 싶은 스님의 작품이 있으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 작품을 내 놓으시는 분과 새로 소장하시는 분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해드립니다.

본 전시장 고문인 KBS-TV 진품명품 감정위원 매산 김선원 선생께서 작품내용의 정확한 설명과 해제를 포함한 감정을 완벽하게 해 드리기 때문에 작품의 진위와 가격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고문 : 매산 김선원 선생 / 방생회장 이근오법사

상담전화 02)420-4460 달마화랑

범주스님 (4월 29일 ~ 5월 29일)

달마화랑 특별초대전

달마화랑 오픈기념, 부루나양로원 기금마련

우리나라에서 창선스님이시며 달마도 최고의 대가(大家)이신 범주스님의 작품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단 한번의 기회!

약력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 건국대신사 문화 입선
- 법보선원종에서 10년 참선 수행
- 안목(사)무주 적정산 주지
- 한국 승려 청목회 초대회장
- 국책포교 10년 (LA 달마사 주지)
- 신채경에서 기금을 위한 자서전
- 선목 개인전(LA, 뉴욕등)
- 자비의 집 건립 기금 자서전
- 노숙자 돕기 선목 개인전
- 현 속리산 달마선원 선원장

범주스님

40년간 수행정진 해오신 범주스님의 달마도는 맑고 밝은 기(氣)를 대 표하는 참 달마도입니다.

선(禪)적인 기(氣)가 출만한 범주스님의 달마도를 한점씩 소장하시어 안시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전

- 비싼 대관료가 없는 만큼 진본 선서화작품을 전시회의 30~40% 할인가격으로 드림.
- 방문하시는 모든분께 범주스님 달마도와 반야심경이 담겨있는 스텐카드 1매씩 증정.
- 가격관계 없이 작품 구매하신 모든분께 서화도자기(20만원 상당) 1점 증정.
-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분도 전화주문하시면 같은 혜택을 드립니다.

상담전화 02)420-4460 달마화랑

이것이 명품이다!

현종심마니 토종오가피는 자사 직영 농장인 포천, 영월, 홍성에서 직접 재배한 100% 국산 토종오가피와 경희대 한방연구소에서 배양한 산삼 배양근 원료를 ISO 9001 품질인증과 식품위생요소중점 관리기준 HACCP에서 인증 받은 초현대식 시설로 원료에서 제조, 생산, 유통에 이르기까지 원통시스템을 갖춘 믿을수 있는 제품입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 시음 무료체험

전화주시면 책자와 비디오예임을 심마니 토종오가피와 함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무료체험의 즐거움과 건강의 기쁨을 누리세요.

현종 토종심마니오가피 국내최초 여자프로 권투단 창단

(주)현종은 세계 주니어 플라이급 챔피언 김주희 선수와 여자프로 유명주 손초롱 선수의 4명으로 출범한 현종 프로권투단은 한국프로 권투발전기에 기여하겠습니다.

※ 국산토종오가피 목욕분양 및 상담 ※

상담문의 및 무료자료배송 02)447-9114

주현종F&B HYUN PUNG F&B CO., LTD.